

은행 '상생금융' 부족하다는 당국... '횡재세' 내야 끝나나

尹 대통령 '은행 종노릇' 발언 후 5대 금융 '상생금융안' 발표에도 이복현 등 당국 수장, 비판 지속 담합 우려에 비공개 간담회 취소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본사 전경. /각사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주문으로 은행들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당국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 16일 추가 상생금융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은행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횡재세'를 내야 '은행패러기'가 끝난다는 말까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은 오는 16일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앞두고 상생금융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상생금융 자체 방안에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은행권은 다급히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았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으로 1000억원 규모를 지원, 신한금융은 지난 6일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0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1000억원의 상생금융안을 내놨지만 금융당국 수장들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다"며 "은행

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6일 "어떤 '혁신'을 했기에 올해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리스크 관리와 시장분석 능력이 있는 은행들이 소비자한테 (금리 부담을) 다 전가하는 구조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7일 상생금융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국 수장의 발언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 역시 발표를 최대한 미루고 정부 의중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지난 13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5대 금융지주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취소됐다.

'독과점'과 '종노릇' 등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지원 규모와 방향성 등을 조율해 담합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16일 간담회에서 금융그룹들이 코로나19 이후 벌어들인 이자 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부나 출연 형태로 내놓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마련된 재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한

(갈아타기)과 일부 담감,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방안에도 결국 '횡재세'를 내야 '은행패러기'가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당국에 입맛에 맞게 상생금융안이 처리되어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 될 경우 이자장사 비판과 상생금융 시즌3가 결국 나오기 때문이다.

은행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당국 역시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횡재세를 내야 모든 것이 끝난다"며 "상생금융 방안 역시 상반기 10조원에 달하는 시즌1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했는데 또 다른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방안보다는 애초에 정부와 당국이 원하는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이 질타를 덜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현대건설,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과 협력

RWE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해상풍력발전·그린수소 공동개발

현대건설이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과 손잡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장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서울 중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서 알더블유이 오프쇼어 윈드(RWE Offshore Wind GmbH, 이하 RWE)와 '해상풍력발전 및 그린수소사업 공동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 ▲양사가 개발 중인 사업의 상호간 참여기회 도모 ▲그린수소를 포함한 신에너지 분야 신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왼쪽)과 스펀 우테르펠렌 RWE CEO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규사업 모색 등에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발전시장에 대한 현대건설의 경험 및 네트워크와 R

WE의 글로벌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에 협력해 글로벌 시장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최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보령 청정수소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현대건설의 수소 생산기술과 RWE의 수소 밸류체인 전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린수소 분야에서도 협력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양사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해 차세대 에너지 전환의 흐름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하나금융, 18일 0시~12시 거래 일시중지

모든 금융 거래·서비스 중지돼
부동산 거래 등 미리 계획 수립을

하나은행 금융서비스가 오는 18일 자정 0시부터 정오12시까지 일시 중단된다.

하나은행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에 따라 18일 자정 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12시간동안 모든 금융거래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15일 밝혔다.

중지되는 서비스는 ▲모바일뱅킹(하나원큐, 원큐기업, 하나EZ, 아이부자)·인터넷뱅킹·팝뱅크·폰뱅크·CMS·모바일웹뱅크 등 전자금융거래 ▲가상계좌거래 ▲체크·직불카드를 이용한 거래(현금 인출, 물품 구입 등) ▲하나은행 ATM 이용 거래(현금 인출, 계좌 송금 등) ▲하나인증서 서비스 등이다.

타행과 제휴기관을 통해 하나은행의 계좌와 시스템을 이용하는 서비스도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하나은행의

계좌를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 ▲타은행 ATM 및 제휴 CD기 인출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되며 ▲타행으로부터의 하나은행 계좌 입금도 중지된다.

하나카드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같은날 오후 6시까지 거래가 중지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원큐페이, 하나머니)을 이용한 서비스와 온라인 결제, 장·단기카드대출 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 포인트 및 바우처 사용 등이 일시 중지된다.

다만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거래는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 환전소의 '현금 환전'과 오프라인 가맹점의 '실물 신용 카드 결제'는 중단없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일시 중단에 대비해 꼭 필요한 현금은 미리 준비해주시고, 부동산 거래 등 거래의 송금과 자금 수취 상황 등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NH농협금융 '올원뱅크' 1000만명 돌파 미래비전 선포식

NH농협금융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석준 회장과 이석용 은행장 및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만고객 돌파 기념 'NH올원뱅크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NH올원뱅크는 지난 2016 8월 출시 후 7년 만에 가입고객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간편한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농협금융·경제 계열사 등과 연계한 특화 제휴서비스와 부동산, 자동차 등 차별화된 생활서비스를 통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행사에서는 NH올원뱅크의 추진 성과를 되돌아보고, 홍보모델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임직원 및 고객들의 응원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융·생활·인증 서비스를 통합해 'NH올원뱅크 하나로 다 되는 슈퍼



NH농협금융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1000만고객 돌파 기념 NH올원뱅크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두번째줄 왼쪽 일곱번째)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여섯번째) 및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

플랫폼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비전의 내용은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고객 일상 속 생활 혜택으로 가득 찬 새로운 경험 제공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변화 체계 구축 등 슈퍼플랫폼

의 미래상을 담았다.

NH농협금융은 1000만고객 돌파를 기념해 오는 21일까지 서울 성수동 플랜트랩스 성수플래그쉽에서 'NH올원뱅크 신선놀음 팝업스토어'를 진행한 다. /이승용 기자

인카금융서비스,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매출액 3925억, 영업이익 298억 달성

인카금융서비스가 3분기당기순이익 197억원을 달성하며 상장 이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3분기에 매출액 3925억원, 영업이익 298억원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35.1%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46.9%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6.4% 증가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지난 9월 말 기준 1만4000명 규모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영업력을 바탕으로 지난 8월에는 '장기 신계약 70억원 달성'이

라는 역대 최대 영업 성과를 기록했다.

재무성과가 상승배경에는 소속 설계사들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IT) 서비스 부문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 상품 비교 추천 시스템 ▲자동차 플랫폼 '카링' 등을 출시했다. 향후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인 영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

인카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상장 이후 어려운 경제와 업계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 해내고 있다"며 "앞으로 설계사들의 전문성 향상 및 영업지원 시스템 지원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